

2018년 3월 7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나스닥,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상승

###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1월 반도체 매출 전년 대비 22.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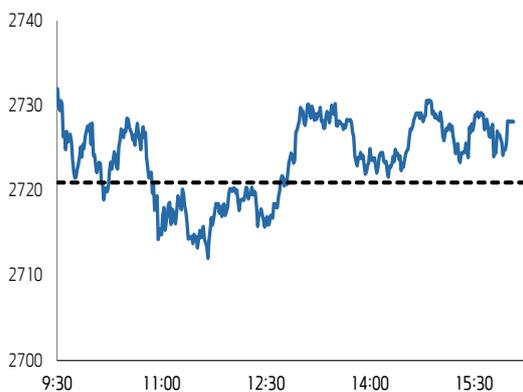
#### 반도체 업황 개선

유럽증시는 무역분쟁 우려 완화에 힘입어 인피니온 테크(+2.09%)등 기술주와 폭스바겐(+2.25%) 등 자동차주가 상승 주도. 미 증시는 무역분쟁 완화와 한반도 리스크 완화에 힘입어 상승 출발. 그러나 카플란 연은 총재가 빠른 시기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하락 전환. 이후 재차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 므누신 재무장관이 무역분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결과. 특히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주도(다우 +0.04%, 나스닥 +0.56%, S&P500 +0.26%, 러셀 2000 +1.04%)

미 증시는 전일에 이어 반도체 업종이 상승 주도.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SIA)가 2018년 1월 전세계 반도체 매출이 376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7년 1월(306억 달러)보다 22.7% 증가했다고 발표한 데 힘입은 결과. 이는 2017년 12월(380억달러) 보다는 1.0% 감소했으나 이는 계절적인 추세를 반영했기에 영향력은 제한. 한편, ISA는 “2018년 강력하고 개선된 출발을 했으며, 모든 주요 지역의 매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리수의 성장을 보였다” 라고 발표. 지역별로 보면 북미지역(yoy +40.6%), 유럽(yoy +19.9%), 아시아 태평양(yoy +18.6%), 중국(yoy +18.3%), 일본(yoy +15.1%) 증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마이크론(+3.29%)은 골드만삭스가 목표주가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 인텔(+1.93%)은 JP 모건이 “최근 산업지표가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해줬다” 라고 언급하자 상승.

한편,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무역전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고 주장한 점도 미 증시 상승 요인. 므누신은 전일 트럼프가 언급한 바와 같이 “NAFTA 재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철강 관세 부여하지 않을 것” 이라고 언급. 더불어 “일부 국가와 무역분쟁과 관련된 대화를 하고 있다” 라고 주장. 대체로 미 행정부도 무역분쟁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반증. 향후 관련된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411.41	+1.53	홍콩恒生	30,510.73	+2.09
KOSDAQ	859.21	+1.68	영국	7,146.75	+0.43
DOW	24,884.12	+0.04	독일	12,113.87	+0.19
NASDAQ	7,372.01	+0.56	프랑스	5,170.23	+0.06
S&P 500	2,728.12	+0.26	스페인	9,586.80	-0.04
상하이종합	3,289.64	+1.00	그리스	799.20	+0.59
일본	21,417.76	+1.79	이탈리아	22,202.50	+1.7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반도체업종 상승 지속

마이크론(+3.29%)은 전일에 이어 급등을 이어갔다. 골드만삭스가 양호한 D램 가격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며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인텔(+1.93%)도 JP모건이 반도체 업황이 강하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특히 SIA(반도체 산업협회)에서 1월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22.7% 증가했다고 발표한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이 결과 브로드컴(+1.61%), 웨스턴디지탈(+4.28%), AMAT(+4.10%), 램리서치(+4.91%) 등도 동반 상승 했다. 반면 쉘컴(-2.92%)은 미국 정부가 쉘컴 매각에 대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으로의 매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하락 했다.

타겟(-4.46%)은 동일점포 매출이 예상보다 증가했으나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 했다. 특히 고정지출 증가에 따른 우려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월마트(-1.02%), 코스트코(-0.01%)도 동반 하락 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2.02%)는 임상시험에 대해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연방 증권법 위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애브비(-0.95%), 화이저(-0.66%) 등도 동반 하락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92%	대형 가치주 ETF	+0.19%
에너지섹터 ETF	+0.29%	중형 가치주 ETF	+0.51%
소매업체 ETF	+1.41%	소형 가치주 ETF	+1.03%
금융섹터 ETF	+0.42%	배당주 ETF	-0.08%
기술섹터 ETF	+0.22%	변동성 ETF	+0.83%
소셜 미디어업체 ETF	+0.64%	대형 성장주 ETF	+0.43%
인터넷업체 ETF	+0.76%	중형 성장주 ETF	+0.77%
리츠업체 ETF	+0.40%	소형 성장주 ETF	+1.18%
주택건설업체 ETF	+1.62%	신흥국 고배당 ETF	+0.21%
바이오섹터 ETF	+0.23%	신흥국 저변동성 ETF	+0.55%
헬스케어 ETF	-0.15%	하이일드 ETF	+0.14%
곡물 ETF	-0.20%	물가연동채 ETF	-0.03%
반도체 ETF	+1.47%	Long/short ETF	-0.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7.31	+0.04%	-0.96%	-3.07%
소재	377.17	+1.09%	-0.66%	+3.03%
산업재	640.55	+0.48%	-1.83%	+2.12%
경기소비재	834.82	+0.72%	+0.41%	+2.77%
필수소비재	557.27	+0.09%	+0.45%	-0.62%
헬스케어	973.54	-0.12%	-1.47%	+1.42%
금융	479.75	+0.39%	-1.10%	+3.64%
IT	1,193.69	+0.24%	-0.27%	+7.76%
통신	156.38	+0.45%	+0.79%	-0.87%
유틸리티	248.35	-1.36%	-0.38%	-0.20%
부동산	187.53	+0.39%	+0.73%	-0.7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상승 지속

MSCI 한국 지수는 3.53% MSCI 신흥 지수도 0.93%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694 계약)에도 불구하고 3.60pt 상승한 314.4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063.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바이오주와 금융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혼조 마감했다. 이는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 기대되는 이슈다. 다만, 미국 반도체 업종 상승 요인이었던 1 월 매출 증가는 전일 일부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은 제한적인 반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일 남북한 정상회담, 비핵화 진전 등 남북한간 많은 합의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점도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지도부가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 라며 관련된 내용에 온건하게 대응을 한 점도 우호적이다. 다만, 과거 사례처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시적인 요인일 뿐 추세를 전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 단기적인 상승요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재무장관이 “무역분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고 주장 한 점도 우호적이다. 물론 이 또한 전일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줬고, 므누신 재무장관은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 또한 제한된다. 결국 한국 증시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무역분쟁 우려 완화에 힘입어 상승 출발하겠지만, 전일 반영이 된 이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 정도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선물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 시장 방향성에 결정되는 웨더독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공장주문 감소

미국의 1 월 공장 주문은 전월 대비 1.4% 감소했다. 6 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변동성이 큰 운송부문을 제외하면 전월 대비 0.4% 증가하는 등 견조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달러 약세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 했다. 다만, EIA 가 단기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2018 년과 2019 년 미국 산유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 하자 상승폭이 축소 되었다. 다만, OPEC 이 지난 2 월 산유량이 전월 대비 하루 평균 7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되자 하락 또한 제한 되었다.

달러지수는 무역분쟁 이슈가 완화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된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한편, 호주달러 등 상품환율은 므누신 재무장관의 무역분쟁은 없다고 주장한 데 힘입어 달러 대비 1% 내외 강세였다. 한편, 엔화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보험권에서 등락했다. 이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되었으나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데 따른 결과로 추정한다. 유로화는 이탈리아 총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1 월 공장주문 결과가 부진했으나,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데 힘입어 보험권에서 움직였다. 한편, 카플란 연은 총재 등이 여전히 금리인상을 주장하자 하락이 제한 되는 등 변화가 제한 되었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도 달러 약세로 상승 했으며, 비철금속들도 동반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87%, 철근도 0.66%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2.60	+0.05	-0.65	Dollar Index	89.591	-0.54	-0.85
브렌트유	65.79	+0.38	-1.10	EUR/USD	1.2406	+0.57	+1.41
금	1,335.20	+1.16	+1.26	USD/JPY	106.2	0.00	-1.05
은	16.784	+2.27	+2.13	GBP/USD	1.3890	+0.30	-0.14
알루미늄	2,155.00	+0.68	+0.37	USD/CHF	0.9407	+0.09	+0.19
전기동	7,004.00	+1.71	-0.91	AUD/USD	0.782	+0.71	+0.40
아연	3,329.00	+0.85	-5.24	USD/CAD	1.2879	-0.66	+0.81
옥수수	388.25	+0.26	+2.37	USD/BRL	3.2109	-0.99	-1.22
밀	507.00	-0.44	+6.29	USD/CNH	6.3108	-0.38	-0.25
대두	1,074.75	-0.26	+2.41	USD/KRW	1076.1	-0.55	+0.25
커피	121.25	+0.12	+0.12	USD/KRW NDF1M	1063.75	-1.23	-1.64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883	+0.18	-1.08	스페인	1.479	-1.00	-7.70
한국	2.752	+2.70	+0.20	포르투갈	1.903	-3.10	-9.70
일본	0.056	+1.30	+0.90	그리스	4.277	-6.30	-7.20
독일	0.675	+3.20	-0.40	이탈리아	1.992	-0.50	-0.80